

조선 중기 경주 서출지(書出池) 일원의 정원 조영과 특성

김형석* · 심우경**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 **심청 호 문화연구원 준비위원장

I. 서론

경주 남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서출지(書出池)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편(紀異篇) 사금갑(射琴匣)조에 등장하는 연못으로 기록상으로는 신라초기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서출지라는 연못의 유래와 연혁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고, 설화속의 장소로 베일에 가려진 곳이기도 하다. 현재 세계유산이자 사적 제138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연못의 조성과 연혁에 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처럼 유서 깊은 연못 유적이지만, 그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고 있으며, 공간에 대한 조경사 분야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서출지를 다루고 있는 연구와 문헌에서는 사금갑 설화를 인용하며, 내전분수승(內殿焚修僧)과 궁주(宮主)의 간통 사건의 배경으로 언급될 뿐이다. 서출지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서출지 위치 비정에 대한 연구(김형석, 2017), 서출지가의 이요당 관련 기문에 관한 연구(조철제, 1999)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삼국유사』 사금갑 이야기의 해석에 대한 연구로 사금갑 이야기를 통한 신라의 종교적·정치적 내용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연구가 부진한 이유로는 유적을 뒷받침할만한 문헌 부족과 고고학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설화속의 장소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고대에서 벗어나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조경사적 관점에서 정원의 형성과 당시 경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경주 (동)남산 일원에 세거한 풍천 임씨 가문

서출지 일원은 400여 년 전부터 황해도 풍천(豐川)을 본관으로 하는 임씨(任氏)가 대를 이어 살아오고 있다. 서출지가에는 옛 풍천임씨 경주파 종택(宗宅)이 있었는데, 이요당(二樂堂)을 건립한 임적(任勳, 1612~1672)의 가택이었다. 이 종택을 중심으로 서출지 일원은 풍천 임씨와 관련 깊은 정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하지만 후에 가세가 기울어 종택을 매각하였는데, 자손들

이 후에 다시 매입하지 못하면서 종택은 1972년 무량사(無量寺)라는 조계종 사찰로 변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야 무량사 옆에 풍천 임씨 종친회 건물이 한옥으로 지어져 종택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무량사는 종택의 흔적과 사대부가의 모습이 남아있으며, 사찰 내 건물들은 화려한 공포와 단청이 없이 소박하고 정갈한 양반 사대부가의 모습을 보인다.

2. 이요당(빙허루) 건립과 정원의 탄생

서출지는 『삼국유사』에 언급된 이후로 어떠한 문헌도 전해지지 않다가, 조선 중기에 들어와 이요당(그림 1 참조)이 건립되면서 조명받기 시작한다.

서출지의 이요당은 임적이 1664년에 건립하였다. 이요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인 팔작지붕의 'ㄱ'자형 정자 건물로 주위는 높이 2m 정도의 막돌담을 쌓아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04: 347).

한편, 이요당을 건립한 시점에 관련 기문에서 서출지를 언급한 기록을 찾을 수 없는데, 이를 두고 서출지 위치가 잘못 비정되었다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임적이 지은 『이요당창건기(二樂堂創建記)』에는 서출지라는 명칭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池水'라 하여 이미 연못(서출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669년에 편찬된 『동경잡기(東京雜記)』에서도 이요당을 소개하면서 서출지가 언급되지 않는다. 다만 '앞이 연못에 임



그림 1. 서출지가의 이요당(빙허루)

하며, 돌을 쌓아 대를 만들었다[前臨池湖 築石爲臺]라 했는데, '池湖'는 서출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후 70여년 뒤 1736년 「중수이요당기(重修二樂堂記)」에도 서출지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1737년 권상일(權相一, 1679~1759)이 경주를 방문하고 쓴 일기에서 '書出池'라는 언급이 나타나고, 1772년 임화세의 행장(行狀)에 서출지를 '書池'라 표현하고 있다. 특히 권상일의 일기에서는 이요당을 가리켜 빙허루(憑虛樓)라 지칭하고 있다. 빙허루는 이요당과 통용해서 쓰던 당호로서 남용만(南龍萬, 1709~1784)이 지은 기문에 '가볍고 눈부신 비조(飛鳥)가 공허(空虛)한 사이에 날아 표현하게 의지할 데 없는 것과 같은데, 이를 빙허루라 이름한 것이다¹⁾라고 하였다.

빙허루라는 명칭은 그 후에도 나타나는데, 1780년 「빙허루중수기(憑虛樓重修記)」에 '빙허루는 임씨의 별각(別閣)인데, 경관이 빼어나고 서출지가에 있다²⁾고 밝히고 있고, 서출지라는 명칭 또한 등장한다. 이로 보아 당시 사람들은 지금의 이요당이 있는 연못을 서출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1933년 출간된 『동경통지(東京通誌)』에서는 서출지(書出池堤)라 일컫고 있는데, 제(堤)라는 말은 연못의 다용도 기능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일제강점기 이후로 넘어오면서 정원의 기능은 거의 사라지고 수리시설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수이요당기」에 따르면 이요당은 선조의 별서(別墅)라고 밝히며, 술을 가지고 이 정자에 오르면 금오산[湖山]의 풍경을 눈과 귀로 얻어 볼 수 있는 자연을 즐기던 곳이라 하였다.

문헌에는 이요당을 지칭하는 말로서 1664년 「이요당창건기」에서 정사(精舍), 1669년 『동경잡기』에서 객당(客堂), 1736년 「중수이요당기」에서 별서(別墅), 1780년 「빙허루중수기」에서 별각(別閣), 그 외 빙허루로도 불렸으며, 서출지 또한 다양하게 지칭되었다. 임적의 호이기도 한 이요당은 본래 임적이 손님과 친구를 맞아 시를 읊고, 시간을 보내던 임적의 가택에 있는 별채 당호이다(조철제, 2003: 107). 따라서 1664년 가문에 샘을 파서 이를 계기로 서출지가에 세운 이요당과 동명이당(同名異堂)이 된다. 즉, 임적의 집안에 있던 이요당(별채)이 서출지가의 누정이 건립되고 당호가 옮겨간 것이다.

현재는 이요당이라는 이름만 알려져 있으나, 빙허루라는 명칭을 평소 통칭하였다. 조선시대 누정은 기능과 바라보는 풍경에 따라 여러 개의 현관을 설치하여 명명하였던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요당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이요당과 빙허루라는 명칭으로 통용되었으며, 정원의 누정으로 기능하였다.

3. 서출지 일원의 입지와 공간구성

서출지를 중심으로 서쪽에 옛 풍천 임씨 종가였던 무량사가

있으며, 그 뒤로 금오산(남산)이 병풍처럼 두르고 있다. 그 앞으로는 넓은 들판(논)이 있고, 남천이 흘러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수려한 자연풍경을 갖춘 종택의 지근거리에 위치한 서출지는 최적의 별서정원 입지를 가지며, 조선시대에는 동남지역에서 경치가 으뜸인 곳으로 널리 알려졌다.

서출지 일원은 담장 안에서 벗어나 자연을 그대로 정원으로 경영하였으며, 나아가 동남산 일원으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정원이다. 동남산 기슭이 풍천 임씨의 집성촌으로 종가가 있었으며, 「중수이요당기」에서 별서라 지칭하고 있으므로 이요당이 있는 서출지 일원은 풍천 임씨 종가의 영향권에 있는 별서정원이었다. 임씨 종가와 별서인 서출지 일원은 시야권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풍천 임씨의 원림으로 경영되는 등 남산 일원을 영향권으로 하였다.

4. 시문에 나타난 서출지 일원의 경관

서출지 일원은 남산 자락의 자연 풍광과 소나무, 대나무, 꽃, 나무, 연못으로 이루어진 원림으로 소나무와 대나무는 현재도 서출지 주변에 숲을 이루며, 주된 식생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요당과 서출지가 관련된 시문을 통해 서출지 일원의 경관과 식물 등 공간에 대해 유추할 수 있다.

시문에서는 신선을 동경하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어 선계(仙界)를 추구하는 원림으로 볼 수 있으며, 은둔의 장소, 학문과 유식을 위한 정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꽃을 비롯하여 소나무와 대나무, 뽕나무, 국화가 언급되고 있다. 서출지의 연꽃, 서출지 일원의 배경이 되는 소나무와 대나무, 남산 자락에 위치한 마을의 뽕나무, 국화 등이 장관을 이루며, 서출지 일원의 공간을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와 현재의 서출지 일원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시문에 나타나는 과거 경관과 현재의 경관을 비교해 보면 소나무와 대나무 숲, 연꽃은 현재에도 주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현재 서출지 경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배롱나무에 대해서는 시문에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과거에는 배롱나무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물리적인 경관은 서출지 일원이 개발 사업에서 배제된 측면이 있어 시문 속에 나타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상기 서출지 일원의 경관을 읊은 시문 등을 활용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한다면 이 역사적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서출지 일원은 단순히 신라시대 설화 속의 장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별서정원으로의 가치와 기능, 문화콘텐츠, 문화경관적 측면에서의 의미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신라 이후 조선 초기까지는 서출지에 대한 기록이 없고,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의 기능과 경관에 대해 추측할 수 없지만, 조선 중기 풍천 임씨가 동남산 일원에 세거하면서 서부터 그 영향권에 있는 별서정원으로 경영되었다. 당시에도 서출지를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유서 깊은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연못이자 수리시설 역할을 하고 있던 서출지 일원이 정원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은 임적이 이요당을 서출지가에 건립하면서 부터였다. 이요당은 임적의 가택에 있던 별채의 당호였으나, 서출지가에 이요당이 건립되고 자신의 집에 있던 별채의 당호를 서출지가의 누정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문헌기록을 살펴볼 때 이요당은 객당, 정사, 별각, 별서 등으로도 불렸는데,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 누정으로 판단된다.

서출지 일원 원림의 경관에 대해서는 여러 문서들이 서출지를 찾아 시문과 기문을 남겨 당시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누정으로의 기능 때문에 이요당이라는 이름보다는 당시 통용되던 빙허루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다.

서출지는 뒤로는 경주 남산[금오산], 앞으로는 넓은 들과 남천이 흐르는 풍경이 수려한 곳으로 동남지역에서 으뜸인 경치로 이름이 높았으며, 자연에 인간의 흔적이 가미된 전형적인 조

선시대 별서정원이다. 현재 풍천 임씨 종가가 무량사라는 사찰로 변하여 종가와 서출지 별서정원의 관계성은 사라졌지만, 주요 경관 요소인 연꽃과 소나무, 대나무 숲이 옛 시문에도 나타나며, 현재 서출지 일원은 개발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지역인 것으로 봐서 경관이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 1. 浮翬飛鳥 革於空之間而 飄飄然 知無所憑 此其所以名也(『活山集』).
주 2. 憑虛樓者 任氏別閣 以勝觀聞 在書出池上(『活山集』).

참고문헌

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2004) 경주남산정밀학술조사보고서. 경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2. 김형석(2017) 사적 제138호 경주 서출지의 위치비정 논란에 대한 역사적 고찰. 신라문화유산연구 1.
3. 조철제(1999) 경주의 院祠와 亭齋 (2). 경주문화논총 2.
4. 조철제(2003) 경주의 院祠와 亭齋 (6). 경주문화논총 6.
5. 東京雜誌
6. 東京通誌
7. 二樂堂創建記
8. 重修二樂堂記
9. 活山集